

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의 분절과 결합 구조

장노현*

1. 들어가기
2. 연구 대상 자료의 소개
3. 스토리텔링의 분절과 결합 양상
 - 3.1. 분절의 원리와 표지들
 - 3.2. 상위체험의 설정
 - 3.3. 분절된 텍스트 결합 양상
4. 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의 의의

국문요약

이 논문은 서사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개인 생애사 스토리텔링에 관한 것이다. 서사 인터뷰란 조사자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구술자가 자신의 삶 전체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술하는 것이다. 서사인터뷰의 구술자는, 잘 짜여진 질문지에 답변하는 구술자와는 달리, 자신의 삶에 대한 창의적인 이야기꾼이 된다. 이 논문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조사된 총 30건의 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서사 인터뷰를 통한 개인 생애사 스토리텔링은 삶을 재구성하는 행위이다. 이 작업은 일견 근대적 소설가의 창작 작업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구술자와 소설가의 작업은 서사 구조의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보인다. 구술 생애사 텍스트는 서사적 분절의 원리에 따라 구술되고, 그 결과 크고 작은 분절된 텍스트 구조를 갖게 된다. 그리고 텍스트가 분절되는 지점에는 다양한 형태의 분절 표지들이 자리잡게 된다. 분절 표지는 시작 표지와 종결 표지가 있다. 그것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통사적 표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좀처럼 인식하기 어려운 내용적 표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분절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자립적인 자질을 갖는다. 하지만 그것은 상위체험의 관점에서 볼 때, 다시 결합되면서 좀 더 역동적인 이야기 구조를 만든다. 구술자들은 주제 귀속적 관점이나 소재 귀속적 관점에서 다양한 상위체험을 설정한다. 한 개인의 생애사 스토리텔링에서 상위체험은 보통 여러 개가 설정되며, 이런 상위체험들은 상호 대등한 수평

*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적 구조를 갖거나, 중요도에 따른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

개별적인 분절 텍스트들이 상위체험의 관점에서 결합될 때의 양상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시간적 순서에 따른 결합, 문제 제기과 해결에 따른 결합, 공간관심대상의 이동에 따른 결합, 연상의 기법에 따른 결합 등이 그것이다. 이런 결합 양상들은 구술자의 삶을 대하는 태도, 스토리텔링의 전략이나 능력 등에 따라 쓰임이 선택된다. 예컨대, 삶의 전개 과정을 주체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구술자는 문제제기와 해결의 방식을 선호하고 변화가 적은 시대나 삶을 살았던 구술자는 공간관심대상의 이동 방식을 선호했다. (주제어: 구술자료, 생애사, 스토리텔링, 서사인터뷰, 구술자, 상위체험, 분절 구조, 결합 양상, 분절 표지, 서사 구조)

1. 들어가기

최근 들어 정보 소통의 방식과 매체가 혁명적으로 바뀌면서 문학을 둘러싼 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서사 혹은 스토리텔링의 쓰임새가 크게 확장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제 서사나 스토리텔링은 소설, 영화, 드라마 같은 전통적인 영역을 벗어나, 게임, 광고, 디자인, 홈쇼핑, 테마파크, 스포츠, 박물관 등의 수많은 부문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중요한 기획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가히 스토리텔링의 시대가 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기획자들이 참고할 만한 새로운 스토리 소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문학계는 아직도 인쇄텍스트에 기반한 허구적인 근대적 서사물 즉 근대소설에 대한 과도한 애정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려 한다. 근대소설을 벗어나서 새로운 스토리 소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대소설의 물적 토대가 되는 인쇄 매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허구적 이야기여야 한다는 제한에서도 벗

어나야 한다. 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은 바로 그런 분야이다. 이것은 평범한 일상인들의 자기 서사, 즉 자신의 삶과 생애에 대한 이야기이다.

왜 하필 인쇄 매체 대신에 구술 매체여야 하고, 허구적 이야기 대신에 생애사 이야기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애사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흥미롭고 다채롭고 역동적인 이야기 소스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어쩌면 소설의 상상력이 제공하지 못하는,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거리일 수도 있다. 실제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KBS의 휴먼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은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해서 영화의 단골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¹⁾

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은,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이 그렇듯이, 일종의 새롭게 발견해야 하는 오브제라고 할 수 있다. 변기라는 일상적 사물이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장소로 편입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관점을 부여받았듯이, 보통 사람들의 개인 생애사도 서사인터뷰라는 구술 방법론을 통과하고 학문적 장에서 논의됨으로써 이야기로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의 서사 구조를 분절과 결합의 원리로 설명해 내고자 하는 이번 연구는 그런 학문적 논의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2. 연구 대상 자료의 소개

이 연구는 서사인터뷰 방식으로 만들어진 총 30건의 구술 생애사 스토

1) 예컨대, 고두심 주연의 <엄마>, 최민식 주연의 <꽃피는 봄이 오면>, 정재영과 수애 주연의 <나의 결혼 원정기>, 조승우 주연의 <말이톤>, 신현준 주연의 <맨발의 기봉이> 등이 휴먼다큐 <인간극장>을 소재로 해서 기획된 영화들이며, 이런 추세는 최근 들어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리텔링 자료를 대상으로 삼았다. 서사인터뷰란 조사자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구술자가 자신의 삶 전체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구술자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생애 경험의 구성요소들을 스스로 취사선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야기하게 된다. 이는 기존 회고록 형태의 구술 자료들이 대부분 잘 짜여진 질문지를 활용함으로써 조사자 혹은 연구자의 의도나 목적을 주로 반영하게 되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이다. 서사인터뷰에서 구술자는, 회고록의 구술자와는 달리, 자신의 삶에 대한 창의적인 이야기꾼으로 거듭나게 된다.

연구 대상의 자료의 구술자는 모두 경기도 성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구술자 30명의 기본정보를 이름(대부분 가명), 출생연도, 성별, 직업 순으로 밝히면 아래와 같다. 구술자 개인별 구술시간은 대개 90분 전후이며, 간혹 120분을 초과하거나 60분을 겨우 채운 경우도 있다. 구술 과정은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하여 MP3 파일 형태로 저장하였다. 그리고 녹음된 자료는 음성전사 프로그램인 소리벼리²⁾를 이용하여 텍스트 형태로 전사함으로써 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들었다.

1. 이문성, 1968년생, 남, 지역문화운동가
2. 라경승, 1969년생, 남, 지역문화운동가
3. 김정현, 1964년생, 남, 문화단체 대표
4. 진영준, 1963년생, 남, 문화단체 대표
5. 황윤정, 1968년생, 여, 문인화가, 복지관장사
6. 양미영, 1961년생, 여, 분당퀵트 대표
7. 송주석, 1958년생, 남, 합주단지휘자
8. 구보윤, 1963년생, 남, 구두수선업

2) 소리벼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 사업에서 개발한 음성자료 전사 프로그램으로, 음성과 전사된 텍스트 간의 시간 동기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사 전용도구이다.

9. 궁태원, 1959년생, 남, 사진작가
10. 노민숙, 1960년생, 여, 주부·부업
11. 민서희, 1982년생, 여, 학원강사
12. 백자경, 1969년생, 여, 봉사활동
13. 봉준수, 1945년생, 남, 자영업
14. 염철희, 1945년생, 남, 자영업
15. 지식태, 1980년생, 남, 대학원생
16. 박영호, 1936년생, 남, 새마을지도자·방앗간
17. 정형주, 1929년생, 남, 새마을지도자·인쇄업
18. 김미경, 1966년생, 여, 통장·보험업
19. 박준규, 1956년생, 남, 주민자치위원장
20. 성진원, 1970년생, 여, 보험업
21. 정유재, 1942년생, 남, 선원·건설업
22. 김유미, 1982년생, 여, 다문화가정 주부
23. 윤여정, 1953년생, 여, 부녀회장·슈퍼
24. 표승태, 1962년생, 남, 과일가게
25. 박금순, 1926년생, 여, 농사 및 장사
26. 김유전, 1926년생, 여, 농사 및 장사
27. 강지용, 1958년생, 남, 사회복지법인 운영
28. 안일준, 1952년생, 남, 보험업
29. 이현정, 1966년생, 여, 통장·보험업
30. 정철경, 1960년생, 남, 방범대장·자영업

구술자들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생애사 스토리텔링에 참여하였다. 우선 1~7번 구술자는 2007년도 ‘기충리더십과 시민공동체’ 연구 과제³⁾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사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이다. 기충리더의 서사적 정체성을 재구성하여 기충리더의 유형과 특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구술자들은 모

3) 장노현, 성남지역 문화클럽 리더들의 서사적 정체성 재구성, 『기충리더십과 시민공동체』 연구결과발표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4, 69~98쪽.

두 자발적인 소규모 문화클럽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7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술자들은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야기북 사업에 참여한 구술자들이다. 이야기북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애사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 내의 생활문화와 삶의 방식을 기록하고 나아가 생활문화공동체의 강화를 목적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구술자는 모두 평범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었다. 2008년에 성남시 상대원동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2009년에는 태평동과 은행동의 이야기북 작업을 하였다. 구술자 중에서 8~15번은 상대원동 구술자이며, 16~24번은 태평동, 25~30번은 은행동 구술자이다. 이야기북은 서사인터뷰를 통해 만들어진 기본 구술 자료를 재구성하여 최종적으로 『○○동 사람들 이야기』로 출간되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재구성 자료가 아니라, 기본 자료인 전사된 텍스트를 연구 대상 자료로 삼았다.

3. 스토리텔링의 분절과 결합 양상

서사 인터뷰를 통한 개인 생애사 스토리텔링은 삶을 재구성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무수히 다양한 가지들과 고원들로 이루어진 현실적 삶의 직접 체험과 간접 경험들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구술자는 자신의 서사적 기획과 관점에 따라 이야기를 분절하고 그것을 배치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 작업은 일견 근대적 소설가의 창작 작업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구술자와 소설가의 작업은 서사 구조의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보인다. 소설가는 서사적 연속성을 중시하는 반면, 구술자는 서사적 분절의 원리 위에서 작업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서사적 기획이나 전달 매체의 특성,

장르의 미적 관습 등 다양한 측면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장된 주제를 탐구하는 것은 차후로 미루고, 여기서는 처음 설정한 연구 목표대로 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특징에 해당하는 서사적 분절의 원리 자체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하겠다.

3.1. 분절의 원리와 표지들

구술 생애사 텍스트는 서사적 분절의 원리에 따라 구술되고, 그 결과 크고 작은 분절된 텍스트의 구조를 갖는다. 분절된 텍스트는 하이퍼텍스트 서사의 단위텍스트⁴⁾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이 분절의 원리에 따라 파편화된 구조를 갖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것은 삶 자체의 파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애사 스토리텔링은 완성이나 완결에 이르지 않은 채로 구술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끝없이 반복되는, 우연적이고 단편적인 요소가 강한 인생 여정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구술자에 따라 삶을 계획적이고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실제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삶 자체가 우연적 계기를 따르는 비연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비연속적 삶의 과정은 시분할 된 일상의 반복을 의미한다. 일상은 루프 구조처럼 무한 반복되는 파편들일 뿐이고 연속적인 과정은 아니다. 이런 파편화된 삶의 구조는 심하게는 이야기의 끝없는 반복 구조로 재현되기도 한다. 칼라하리 사막의 쿵족 여성들의 생애사 이야기를 다루는 『니사』에는 서른 다섯 살 된 나우카⁵⁾의 이야기가 나온다.

나우카는 생애사 구술 요청을 받고, 이름과 장소를 매번 바꿔 가며 전

4) 장노현, 『하이퍼텍스트 서사』, 예림기획, 2005, 262~271쪽 참조.

5) 마저리 쇼스타, 유나영 옮김, 『니사 - 칼라하리 사막의 쿵족 여성 이야기』, 삼인, 2088. 60쪽.

형적인 패턴에 끼워 맞춘 이야기를 끝없이 반복한다. 그 이야기란 결국 이런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 아버지, 언니, 오빠, 이모, 삼촌 등이 어떤 나무뿌리, 열매, 고기 등을 그녀에게 나눠주기를 거절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음 주, 다음 달에 그녀가 나무뿌리, 열매, 고기 등을 얻게 되어 아버지, 어머니 등이 그걸 달라고 손을 벌리자, 양갓음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부탁을 보기 좋게 거절했다는 것이었다. 나우카의 이야기는 삶이 동일한 패턴에 의해 끝없이 반복된다는 극적인 상징으로 읽힐 수 있다. 이는 인과성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근대소설이 서사구조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이 서사적 분절의 원리에 따른 파편화된 구조를 갖는 또 다른 이유는 ‘구술’이라는 전달 매체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월터 옹에 따르면 구술문화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상황의존적이며 첨가적인 형태로 사고하고 표현한다.⁶⁾ 즉 구술적 표현은 상황별로 파편화되고, 첨가적인 형태로 상호 결합하게 된다. 우리는 이를 구술이라는 전달 매체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의 경우도 구술문화의 이런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서사적 분절의 원리는 구술 생애사 텍스트의 서사 구조와 주제를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의 대상과 매체적 특성으로부터 분절의 원리가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술자가 자신의 생애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인생의 변화 양상과 단계를 어떻게 이해하려 하는지 등은 텍스트의 분절 양상을 살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악될 수 있다.

생애사 구술자들은 새로운 인생의 한 면이 시작될 때, 혹은 매우 중요한 사건과 제도의 변화가 나타날 때를 비롯하여 무수히 다양한 지점에서

6) 월터 J. 옹, 이기우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60~92쪽.

텍스트를 분절하면서 새로운 텍스트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분절 지점에는 분절의 표지를 심어둔다. 분절 표지는 서사적 혹은 통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한 덩어리의 이야기를 분리해내는 표식이다. 분절 텍스트는 바로 이 표식에 의해 경계지워진 각각의 단위텍스트를 지칭한다.

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의 분절 표지⁷⁾는 새로운 단위텍스트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시작 표지와 지속되던 단위텍스트가 끝남을 알려주는 종결 표지, 두 종류가 있다. 분절 표지는 그것이 분절 표지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이며 쉽게 확인되는 분절 표지로는 통사적 구문 자체가 분절 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시작 표지로 흔하게 사용되는 통사적 표현으로는, “그 다음으로”, “그리고 나서”, “그래가지고” 등이 있다. 종결 표지로는 “그랬습니다”, “그랬었어요”, “네 그래요... 하하하”, “예 그거는 그러고” 등의 통사적 완결 표현들이 사용된다. 이런 종결 표지는 모든 구술자에게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구술자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김정현 구술자와 황윤정 구술자는 이런 종결 표지들을 자주 사용하였다.

또한, 새로운 시간 상황을 설정하는 분절 표지나 새로운 공간의 도입을 보여주는 분절 표지도 비교적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언어적 표지이다. 메타 서사적 예고 구문도 손쉽게 인식되는 분절 표지에 해당한다. 몇 가지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시간 상황의 설정 : “그렇게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들어서면서”(이 문성), “몇 년이 지나서 2004년 쯤 됐나”(양미영)
- 새로운 공간의 도입 : “거기를 가서 느낀 게”(양미영) “바로 여수동으로 나왔죠”(전영준)
- 메타 서사적 예고 구문 : “그러면서 이제 유독 기억나는 게”(송주석), “그리고

7) 가브리엘레 루치우스·회네·아르놀프 데퍼만, 박용익 옮김, 『이야기 분석』, 역락, 2006, 155쪽.

그 사람들이 뭐가 되게 충격적이었나 하면”(황윤정), “이게 거의 막바지 얘긴데요”(김정환)

개인 생애사 스토리텔링에서 새로운 시간 상황을 설정하기 위한 시작 표지는 위의 경우처럼 연대, 연도, 그리고 “20대에 들어서” “결혼 이후”, “졸업을 하고” 등으로 보다 큰 규모의 시간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날짜나 몇 시 몇 분 등의 시간 단위를 분절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수십 년에 걸친 긴 인생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날짜나 세부적인 시간을 서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 상황의 설정을 보여주는 시작 표지들은 구술 시점으로부터 먼 이야기일수록 보다 확연한 형태로 등장한다. 반면 구술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표지들은 줄어들거나 불확한 형태를 취한다. 이는 오래된 기억일수록 이미 자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리되고 의미가 확정되었음을 말해준다. 즉 오래된 사건이나 체험은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회상되고 반추되는 계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애사에서 그 일이 가지는 의미나 중요성이 정리·확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잊혀지거나 망각되지 않고 구술자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으며, 각인된 기억 덕분에 좀 더 분명한 시간 표지를 사용하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공간의 도입을 나타내는 분절 표지는 시간 표지에 비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나타나더라도 시간 표지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통해 개인 생애사 스토리텔링이 공간보다는 시간 중심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종결 표지로는 하향적 억양 곡선과 발화의 휴지 등이 많이 쓰인다. 라경승 구술자 이런 종결 표지를 특히 많이 사용했다. 예컨대, “일년

사이에 고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 다른 형태의 종결표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평가적 또는 결과 확인적 완결 해석 : “그런 식으로 인제 생각을 바꿨어요”
(황윤정)
- 서사 내용의 요약적 반복 : “인제 그런 계기들이예요. 제가 음악적으로 한 어
린 시절의 계기는 잡다한 거보다는 그런 짹짹막막한 임프레션들이 주는 영향
력이랄까”(송주석)
- 사건의 요약과 반복

분절 표지 중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 말고도,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들도 있다. 이런 분절 표지들은 반복적인 구술 청취나 이야기의 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그것이 분절 표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이다. 구술자에 따라서는 생애사의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요약하여 관용구처럼 반복 구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그런 관용구는 좋은 분절 표지가 되기도 했다.

텍스트 사례(1) : 박금순 “가족들의 중풍”

1. 좀 살만 하니까
2. 우리 시어머니 중풍 맞아서 삼년 고생하시고
3. 우리 바깥양반 또
4. 저리 이사 가서
5. 신아홉에 중풍 맞아서
6. 예순셋에 세상을 오년 만에 뜨시고
7. 뭐 잘 살 거 뭐 있어.
8.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⁸⁾

이 사례는 2009년도에 조사된 성남시 은행동 박금순 구술자⁹⁾의 생애

8) 장노현,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 성남문화재단, 2010, 190쪽.

사 스토리텔링 마지막 부분이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중풍을 걸려 3년과 5년 만에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 할머니는 그 기간 동안 병수발을 하느라 무진 고생했다는 내용이다. 할머니는 자신이 겪었던 이 일을 전체 구술 과정에서 모두 3차례 반복했다. 이 일은 삶에서 가장 깊이 각인된 사건들로 이미 관용구처럼 정형화된 패턴으로 할머니의 기억 속에 정리되어 있는 듯했다. 시어머니의 3년 중풍과 사망, 그리고 남편의 5년 중풍과 사망에 대한 기억은 한 토막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낮 두리처럼 등장하여 구술의 분절 표지로 사용되었다.

종결 표지와 시작 표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은 텍스트 분절 지점에 종결 표지와 시작 표지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이다.

텍스트 사례(2) : 김정현 ‘교사의 꿈’

1. 그래서 등교 정지 좀 먹었거든요.
2. 〇〇고등학교를 나왔어요.
3. 근데 아니 난 수업도 다 받았는데
4. 학교를 공부를 다 했는데, 출석부에만 등교 정지예요.
5. 어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지랄 같더라고요.
6. 그때 이제
7. 제가 꿈은
8. 교사가 꿈이었죠 선생하는 거.
9. 그것도 또 낙도나 이런 데서
10.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위의 김정현 구술자¹⁰⁾의 사례에서는 5번째 줄과 6번째 줄 사이에서 텍

9) 박금순 구술자의 서사인터뷰는 2009년 11월 26일 이루어졌다. 인터뷰를 재구성한 <은행동 여자의 일생기>와 전사된 구술 자료가 다음 책에 실려 있다. 장노현,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 성남문화재단, 2010.

10) 김정현(가명) 구술자의 서사인터뷰는 2007년 9월 5일 이루어졌다.

스트가 분절된다. 여기서 구술자는 자신이 착실한 고등학생이었지만 등록금을 못 내서 등교 정지를 먹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난 후 이 단위텍스트를 종료하기 위한 종결 표지로서 ‘평가적 언급’을 활용한다. 5번째 줄의 “어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지랄 같더라구요”가 바로 종결 표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나서 구술자는 곧바로 새로운 분절 텍스트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 표지를 사용한다. 이어지는 분절 텍스트는 교사의 꿈을 꾸게 했던 한 여교사에 대한 추억인데, 이를 구술하기 위해 구술자는 다음에 나올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려 알려주는 ‘예고’ 형식의 시작 표지를 사용한다. 6번째 줄에서 10번째 줄까지가 바로 그것에 해당한다.

3.2. 상위체험의 설정

생애사 구술 요청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자신의 삶이 ‘이야기 될 가치’가 있을지 걱정한다. 그것은 평소에 자신의 인생 역정을 책으로 쓰면 소설 몇 권은 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야기 될 가치’에 대한 걱정은 삶 자체의 사소하고 하찮음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구술을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다름 아니라고 여겨진다. 즉 이야기꾼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걱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좋은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야기에 나름대로의 체계와 구조가 있어야 함을 구술자들이 의식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구술자는 자신의 구술을 의미로 가득 찬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예컨대 “구술자는 시간의 정리 전략과 순차화의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내용적 연상과 의사소통적 욕구를 추종할 수도 있다.”¹¹⁾ 따라서 구술 스토리텔링 텍스트가 일반적으로 통일성과 완결성이 부족하며 산만하

11) 가브리엘레 루치우스·회네·아르놀프 데퍼만, 박용익 옮김, 『이야기 분석』, 역락, 2006, 157쪽.

고 느슨한 체계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무질서하고 체계 없는 텍스트라고 볼 수는 없다. 구술자들이 이야기 효과를 걱정하는 한, 이야기는 나름대로의 체계와 구조를 갖추게 된다.

분절된 텍스트는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어떤 분절 텍스트에서는 서사적 사건이 다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평가나 의미가 이야기 되기도 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의미나 형식 면에서 자립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자립적인 분절 텍스트는, 하이퍼텍스트 서사의 단위텍스트가 그러하듯이, 다른 분절 텍스트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한다. 즉 인접한 분절 텍스트들과 복잡하게 얽혀들면서 좀 더 역동적인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결합 과정을 통해 더 큰 서사가 구성되고 의미가 분명해진다.

파편적인 이야기 요소에 해당하는 분절 텍스트들이 서로 결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상위체험의 관점이라는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위체험이란 학창시절의 경험들, 시댁 식구들, 직업을 갖고 돈을 벌기 위한 노력들, 질병과 그것의 치료에 관한 일련의 노력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고, 실제로 구술자마다 다양한 상위체험의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을 진행한다. 한 개인의 생애사 스토리텔링에서 상위체험은 보통 여러 개가 설정되며, 이런 상위체험들은 상호 대등한 수평적 구조를 갖거나, 중요도에 따른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 하나의 상위체험은 여러 개의 분절 텍스트를 수반하며, 수반되는 텍스트의 수가 많을수록 구술자는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박금순 구술자는 시댁 식구들이라는 상위체험에 구술의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의 이곳 저곳에서 불쑥 불쑥 등장한다. 그것은 구술자의 삶이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려준다. 송주석 구술자는 학창시절의 경험이라는 상위체험을 긴 분량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는 그것이 현

재의 모습을 있게 한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현정¹²⁾ 구술자는 아들의 암투병과 극복이라는 상위체험을 중심으로 생애사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그녀는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곡점을 드러내려 하였다. 또 정유재 구술자는 군대 체험을 스토리텔링하면서 많은 분절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데, 이는 구술자가 군대 시절을 극적이고 인상적인 장면들로 기억한다는 의미이다.

상위체험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주제 귀속 관점과 소재 귀속 관점이 있다. 분절된 텍스트들을 주제적으로 귀속시키는 상위체험의 관점은 인식론적이며, 해석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자신의 삶이 일관된 의도 하에 전개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구술자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반면 텍스트들을 소재적으로 귀속시키는 상위체험의 관점은 비교적 덜 해석적이다. 이 경우의 구술자는 삶의 의도성을 드러내지 않고, 삶에 대한 자신의 해석적 견해를 덧붙이지 않는다. 물론 구술자들이 어느 하나의 관점에만 의존해서 상위체험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구술자라도 어떤 것은 주제 귀속적으로 어떤 것은 소재 귀속적으로 상위체험을 설정한다.

주제 귀속 관점에서 주로 상위체험을 구성했던 예로는 이문성 구술자들 들 수 있고, 반면 구보윤¹³⁾ 구술자는 소재 귀속 관점에서 상위체험을 구성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이문성¹⁴⁾ 구술자는 한국현대사의 변화에 맞춰 개인사를 구술했다. 그의 구술에서는 자신의 생애사를 성남지역의 시민문화운동의 변화라는 주제와 결합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도를 엿볼 수

12) 이현정(가명) 구술자의 서사인터뷰는 2009년 10월 22일 이루어졌다. 서사인터뷰를 재구성한 <엄마라는 이름으로>가 다음 책에 실려 있다. 장노현,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 성남문화재단, 2010, 125~143쪽.

13) 구보윤(가명) 구술자의 서사인터뷰는 2008년 9월 22일 이루어졌다. 서사인터뷰를 재구성한 <마님발 구두세탁소>가 다음 책에 실려 있다. 장노현,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 성남문화재단, 2009, 21~38쪽.

14) 이문성(가명) 구술자의 서사인터뷰는 2007년 8월 25일 이루어졌다.

있다. 반면 구보윤 구술자는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집’이라는 소재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상위체험 하나를 설정하였다. 답십리 철거민으로서 성남상대원으로 반강제 이주하게 되었던 구술자가 천막집에서 집다운 집을 짓고, 다시 고쳐짓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은 삶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성취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문성의 경우처럼 주제 귀속 관점에서 중요한 상위체험을 설정하는 구술자들은 삶의 전개 과정을 주체의 의도와 깊게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런 구술자들은 대개 문제 제기과 해결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구술한다. 반면 구보윤의 경우처럼 소재 귀속 관점에서 상위체험을 설정하는 구술자들은 삶을 흘러져 있는 인상적인 요소나 경험들의 집합체로 인식한다. 이들은 공간이나 관심대상의 이동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구술해 나가며,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 부여를 지연시키거나 구술 청취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경향을 보인다.

3.3. 분절된 텍스트의 결합 양상

분절 텍스트의 결합 방식은 4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즉 시간적 순서, 문제 제기과 해결, 공간(관심대상)의 이동, 연상의 기법이 그것이다. 분절 텍스트가 결합되는 양상은, 앞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구술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깊은 연관을 가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술자의 스토리텔링 전략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드물게는 구술자의 스토리텔링 능력에 좌우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체험의 관점이 주제 귀속적인지 소재 귀속적인지에 따라서 분절 텍스트 간의 결합 방식이 배타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주제 귀속 관점을 취하는 구술자도 공간의 이동이나 혹은 연상 작용을 따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소재 귀속 관점의 구술자도 문제 제기과 해결 혹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선 문제 제기과 해결의 결합 양상부터 살펴보자. 이는 삶의 어떤 단계나 순간에 봉착한 구술자가 먼저 하나의 문제와 목표를 먼저 이야기한 후 그것을 해결하고 달성해 가는 과정을 스토리텔링하는 방식이다. 이 결합 양상은 지나간 일에 대한 평가나 의미 분석(일종의 analepses)과 다가올 일의 전망이나 선취(일종의 prolepses)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만들어진다. 선행하는 문제 제기과 후행하는 결과가 대개 시간적 역전 없이 자연적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면, 이것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결합의 특수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 상으로는 앞서 나오는 문제와 목표가 사실은 그 이후의 삶의 과정을 다 겪고 난 후에 사후적으로 인식가능하게 된 경우도 많았다. 즉 실제로는 시간적 순서를 벗어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로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문제 제기과 해결의 결합 양상을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상의 기법은 자연스런 의식의 흐름에 맡겨 스토리텔링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앞서 언급했던 궁죽 여성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니사는 연상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다음과 같이 인상적인 말로 표현하였다. “어떡하지? 지금 얘기를 하나 하는데 다른 얘기가 머리 속으로 생각 속으로 달려들어오네! 그건 좀 이따 말해 줄게. 지금 하는 얘기 다 끝난 다음에”¹⁵⁾ 연상의 기법은 대상의 교체리는 측면에서 볼 때 공간·관심대상의 이동에 따른 결합 방식의 특수한 양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연상의 기법은, 니사 처럼 순차적 나열의 경우는 제외하고, 다른 이야기 중간에 연상된 분절 텍스트가 삽입되는 양상에 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생애사 구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스토리텔링이다. 생애사 구술 요청을 받은 구술자 대부분은 출생에서부터 구술시점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삶의 과정을 스토리텔링하는 것을 볼 수 있

15) 마저리 쇼스타, 유니영 옮김, 『니사 - 칼라하리 사막의 궁죽 여성 이야기』, 삼인, 2008. 67쪽.

다. 즉 고향이나 부모, 혹은 출생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구술자들이 현재의 사회적 위치나 하는 일을 이야기 머리에서 구술하기도 하지만, 그들도 곧바로 출생 시점으로 돌아가 전체 서사의 흐름을 잡아 이야기를 끝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상위체험의 관점이 주제 귀속적이건 소재 귀속적이건 시간적 순서를 따른 연대기적 구술은 생애사 스토리텔링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일관되게 지켜지는 서사적 원칙이나 틀은 아니다. 사실 시간적 선후나 순서가 무시되는 경우도 많이 찾을 수 있다. 송주석¹⁶⁾ 구술자의 사례를 살펴보자. 구술자는 기타학원을 운영하다가 실력을 더 쌓고 싶어 대학교수를 찾아가 사사를 받고, 더 나아가 스페인으로 유학을 다녀오고, 1996년부터 진정한 프로페셔널 기타리스트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구술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텍스트 사례 (3)의 1, 2번 줄에 나타나는 분절 표지는 스페인 유학을 포함하여 프로 기타리스트가 되기까지의 학업 과정에 대한 구술을 마무리짓는 분절 표지에 해당한다.

텍스트 사례(3) : 송주석 “스페인 유학의 계기”

1. 이런 생활을 하다가
2. 그 전공을 마무리짓는 것이 96년도가 되는 거죠
3. 아 그 전에 인제 그런 계기가 있어요
4. 90년도 쯤해서 그니까 이
5. 91년도 여름캠프 가기 전에 90년도 쯤 해서 제가
6. 서울대학교를 들어갈려고 시도를 합니다.
7. 서울대학교 그 때 당시만 해도
8. 서울대학교에 기타과가 유일하게
9. 기타전공이 생겼어요

16) 송주석(가명) 구술자의 서사인터뷰는 2007년 10월 1일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난 직후, 구술자는 무려 6년을 거슬러 올라가 스페인 유학의 계기를 다시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3번째 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는 마흔이 넘은 늦은 나이에 부인을 남겨두고 생업도 체쳐둔 채 스페인 유학으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를 위해 필요한 보충 서술의 성격을 지닌다. 기억 자체의 불확실성에 의한 시간적 선후의 착오가 아니라면, 생애사 구술에서 시간적 선후가 무시되는 경우는 대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생애사 서사인테뷰가 구술 시점에 접근할수록 시간적 선후나 순서가 자주 무시되고 덜 중요해지는 것도 삶의 과정에 대한 합리화의 욕구 때문으로 보인다. 즉 어린 시절, 학창 시절처럼 먼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는 시간적 스토리텔링이 선호되지만, 최근 경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최근 경험은 대개 진행되고 있는, 아직도 자신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구술자들은 대개 시간적 스토리텔링보다 문제제기와 해결의 스토리텔링을 구사한다. 그것을 통해, 사건을 서술하기 보다는 사건의 의미를 따지려 하고 원인을 분석하려 하고,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가까운 과거는 완전한 객관화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구술자는 오히려 현재적 처지와 경험들을 합리화시킴으로써 스스로 선택한 삶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려 한다. 물론 그것은 나쁜 의미의 합리화는 아니다.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대한 스스로의 인정을 통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그것을 지속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를 반영하는 합리화이다. 이런 내적 요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앞서 거론했던 이문성 구술자의 경우처럼, 시간 순서 보다는 문제 제기와 해결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시간의 방식보다 공간(관심대상)의 이동을 중시하는 구술자들도 있다. 그들은 시간적 방식을 선호하는 구술자들보다 변화가 적은 삶을 살았거

나 변화가 적은 시대를 살았던 구술자일 확률이 높다. 안일준 구술자¹⁷⁾의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학교공부를 마치고 우연히 서울에 있는 오리엔트 시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 서울에서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회사가 성남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그도 성남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 후 다시 서울 청량리 누나 집으로 한차례 들어갔다가 다시 성남으로 옮겨 몇 차례의 이사를 하게 된다. 그의 스토리텔링에서 시간의 흐름은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단지 나이가 들어가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간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대신 이사를 통한 공간의 이동이 삶을 구성하고 구술하는 중요한 계기들로 작동한다.

또한, 공간의 이동을 중시하는 구술자들은 시간적 순서를 중시하는 구술자보다 소재 귀속적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상위체험 간의 연결 관계는 물론이고 하위체험들도 단순한 병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안일준 구술자가 결혼 후에 살던 집들을 구술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병치 관계를 유지한다.

텍스트 사례(4) : 안일준 “신혼 살림하던 집들”

1. 그 다음에는 이사를 가가지고
2. 이사를 갔는데 바로 옛날 성남서고 바로 뒤에 뒤에
3. 햇빛이 짝 나는 날 아침에 인제
4. 그 집이 굉장히 어두운 집이었는데
5. 햇빛이 짝 문을 여니까 방이 환히 빛이 비치니까
6. 어둡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갔는데.
7. 그게 이제 서고 바로
8. 옛날 성남서고등학교 바로 뒤라
9. 지형이 좀 꺼져있고

17) 안일준(가명) 구술자의 서사인터뷰는 2009년 10월 19일 이루어졌다. 인터뷰를 재구성한 <가장 평범한 가장 이야기>가 다음 책에 실려 있다. 장노현,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 성남문화재단, 2010, 105~121쪽.

10. 고 다음에 그 밑에다 마당도 내려가 있는 텐데
11. 그 다음에 뭐 성남의 집이 따따따닥 붙어있으니까
12. 집에 딱 들어가니까
13. 이사를 다 하고 들어가 보니까
14. 집이 캄캄하더라구요 근데 그 집에서도
15. 뭐 할 수 없이 한 2년 살았었어.
16. 2년 살고 고 다음에 인제

신혼 살림하던 집을 소개하는 사례(4)의 앞뒤에는 다른 신혼살림 집들이 병치된다. 집의 위치와 특징적인 점을 간단히 소개하는 방식이다. 1번 줄과 16번 줄은 각각 이전 텍스트와 이후 텍스트를 위한 분절 표지에 해당한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병치 방식만큼이나 인접 텍스트들과의 관계에서 비이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스토리텔링의 방식은 삽입의 방식이다. 삽입은 주로 연상적 계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중심적인 내용에서 잠깐 벗어나 여담을 늘어놓는 것이다. 즉 삽입 구성이란 이질적인 이야기가 끼어드는 방식이다. 박금순 구술자는 특히 연상의 기법을 활용한 삽입 구성 방식을 많이 사용했다. 구술자는 담양에서 서울로 시집온 후 시댁 식구들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일제시대 면서기들의 행태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한다. 시동생을 소개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구술자의 머리 속에 시동생의 행방 불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어왔던 면서기가 떠오른 것이다.

텍스트 사례 (5) : 박금순 “시댁 식구들”

1. 내가 시집을 오니까는
2. 큰동...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 동세 시아재
3. 둘째 아들이유 우리가, 우리 영감
4. 인자 나, 또 우리 큰 동세가 네 살 먹은 놈.
5. 이름이 성천이에요.

6. 네 살 먹은 아들이 있었어요 만이로 흥역하다 갔어요.
7. 작년 가을에 내 시집 왔으면 구정 새고 올봄으로
8. 흥역하다가 가버렸어요. 그러고는 우리 시아재는 그저
9. 행방불명이 되고

이 사례에서 구술자는 2~4줄까지 시집온 후의 가족들을 한 명씩 호명한 후에 5~8줄에 걸쳐서 성천이라는 조카를 소개한다. 그리고 다시 8~9 줄에서는 시동생(시아재)에 대해서는 그가 행방불명되었다는 보충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서 구술자는 시동생의 행방불명에 대한 자세한 구술을 위해 일제시대 동네의 면서기 이야기를 꺼내며, 그 면서기의 담당구역을 말하기 위해 주변 일대의 여러 지명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면서기가 돈을 받고 부잣집 아들 대신 가난한 집안의 아들을 대신 군대 보내는 횡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시동생도 그렇게 군대를 갔는데 후에 폭격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다시 가족들 소개로 돌아와 아래와 같이 시동생, 시누이, 조카딸 등을 추가로 소개한다.

텍스트 사례 (6) : 박금순 “다시 시대 식구들”

1. 열한 식구더라고
2.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동생 시아재, 우리 두 부부.
3. 두 부부면은 여섯 식구 아니어요
4. 또 시동생 둘, 시누 하나,
5. 또 저기 저 조카 하나는 죽고 그면 열 아니어요
6. 조카딸, 음력 4월 달에 흥역하다 죽고
7. 조카딸이 또 태어났어요. 그런데 또 쉰여덟에 세상 떴어요
8. 장조카 딸이.

텍스트 사례(6)은 텍스트 사례(5)에 이어지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동생의 행방불명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주변 일대의 지명 소개와

일제시대 면서기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해 놓고 있다. 물론 면서기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는 시동생의 행방불명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 필요한 이야기이지만, 그것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이야기 단위이다.

4. 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의 의의

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서사 영역을 확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학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설 못지않게 흥미롭고 역동적인 생애사 스토리텔링은 문화 콘텐츠의 원천소스의 역할도 훌륭하게 해 낼 것으로 보인다. 성남문화재단에서는 향후 2020년까지 성남의 모든 동네를 대상으로 생애사 스토리텔링 시리즈를 이어갈 계획을 갖고 있으며, 특히 생애사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영화, 다큐멘터리, 연극, 뮤지컬, 전시, 퍼포먼스, 공공예술과의 연계 사업에 들어갈 구상을 진행 중에 있다.¹⁸⁾ 성남문화재단의 이런 움직임은 문화의 최전선인 현장의 실무자들이 생애사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가치와 다양한 활용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지만, 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이제 출발선에 있다.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정리되고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구술 스토리텔링 자료의 전사 원칙과 방법, 전사 텍스트 표준 양식, 전사 전용 프로그램 등의 개발, 그리고 다양한 분석방법론의 지속적인 개발과 정교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이런 학문적인 작업 말고도 구술

18) 장노현,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 성남문화재단, 2010, 20쪽. 이 책의 발간사에 해당하는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북을 펴내며>에서 재단은 이런 구상을 밝혀 놓고 있다.

스토리텔링이 일상 속의 생활문화로 자리잡아 가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생애사 스토리텔링 클럽의 운영 방안 모색이나 지원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생애사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 더불어 스토리텔링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소통을 통하여 삶을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장노현,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 성남문화재단, 2009.

장노현,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 성남문화재단, 2010.

장노현,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 성남문화재단, 2010.

2. 논문과 단행본

가브리엘레 루치우스·회네·아르놀프 테퍼만, 박용익 옮김, 『이야기 분석, 역락』, 2006.

마저리 쇼스타크, 유나영 옮김, 『니사 - 칼라하리 사막의 쿵족 여성 이야기』, 삼인, 2008.

박성희,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원미사, 2004.

윌터 J. 옹, 이기우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윤택립,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2004.

이상록·이유재 엮음,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책과함께, 2006.

장노현, 「성남지역 문화클럽 리더들의 서사적 정체성 재구성」, 『기층리더십과 시민공동체』 연구결과발표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4. 69~98쪽.

장노현, 『하이퍼텍스트 서사』, 예림기획, 2005.

장노현, 「디지털 서사의 서사구성 원리」, 『국제어문』38집, 국제어문학회, 2006. 335~368쪽.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방법과 사례』, 선인, 2005.

Abstract

The Segmental and Compound Structure of Oral Life History Storytelling

Jang, No-Hyun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narrative structure of Oral Life History Storytelling recorded by narrative interview. Narrative interview is a way of oral statement that dictator tells his life history in story form without interviewer's intervention as much as possible. Whoever dictates by narrative interview can become a creative storyteller.

Life history storytelling by narrative interview is to reconstitute the process of living. This looks very much like novelist's creation work, but there is different to ignore between creation of dictator and novelist. Oral life history text is dicta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arrative segmentation and resulted in small and big unit-text. And various types of segmental marks appear upon the segmental positions.

Unit-texts have fundamentally independent qualification. But they are compounded themselves and make more dynamic story structure. Dictators set up various super experiences which are reverted to theme or material. An oral life history storytelling has several super experiences and super experiences possess horizontal or hierarchical construction. Compound aspect of unit-text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conforming to time sequence, raising a topic and solving, conforming to alteration of space, conforming to association. This compound aspect may be selected by dictator's attitude to life, strategy and ability of storytelling etc. (KeyWords : oral material, life history, storytelling, narrative interview, dictator, super

experience, segmental construction, compound aspect, narrative structure)

▮ 위 논문은 2010년 04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05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